

高麗國王發願의 金·銀字大藏

黃 壽 永

우리 古代 寫經에 대한 주목은 전래하는 遺品이 매우 희귀한 사실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못하였다. 기왕에 高麗末期의 若干例가 박물관 또는 民間에 수장되어 있으나 新例의 소개는 거의 없었으며 또 고려 以前으로 올라가는 고고한 ① 遺例가 국내에서 발견된 일도 없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사실상 우리 古代 寫經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近年에 이르러 주로 日本에서의 新例가 現存寺院 또는 民間에서 점차 밝혀졌으며, 또 한편 국내에서는 二年前 佛腹藏에서 多數의 一括유품이 ② 발견되므로써 확실한 자료가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内外의 새로운 資料가 이 부문에서 증가됨을 따라 그 集成과 重要遺品에 대한 한층의 注目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 곳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고려 尙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자료를 오랫동안 수집하여 왔기에 우선 간략하게 소개하여 두고자 한다. 이같이 중요한 遺品들이 비록 零本으로 國內外에 散逸되었으나 그들에서나마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적은 매우 크다고 判定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은 중요한 자료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은 사실에서 앞으로의 주목과 연구를 위하여 도움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二

기왕에 알려진 일마 아니되는 고려사경은 필자가 日本에서 조사한 法華經의 銀泥^③ 또는 墨書의 完秩 數例를 除外하고는 모두 零卷이었으며 간혹 末尾에 跋記가 있어 寫成의 由來와 年代를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傳來品의 거의 全部는 그 당시의 중앙 또는 地方의 官職을 지니

는 發願者가 그 일가 권속의 祈福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治者였던 國王 그 자신의 직접적인 발원에 따라서 그것도 一代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歷代 國王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서 오랜 歲月에 걸쳐서 이루어진 大藏經의 寫成은 무엇보다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大藏經의 寫成에 관한 문헌은 後記하려는 바와 같이 거의 高麗史에 보이고 있으며 또 그것은 고려 一代에 유행하던 寫經業의 專擔機構로서 寫經院(所)가 설치되었던 사실도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寫經院(所)에서 마련되었다고 추정되는 확실한 遺品은 기왕에 국내에서 하나도 알려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하는 國王 自身の 發願經 그것도 상기와 같이 歷代의 國王이 계승하여 이루어진 金字 또는 銀字의 大藏經 寫成은 틀림없이 이같은 寫經院(所)의 寫經僧의 손에서 마련되었던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다. 이하에 열거하는 國王이 發願 寫成한 大藏經의 現存例는 모두 一九五九年 이래 약 十五年에 걸쳐서 필자가 韓·日 兩地에 現品 또는 資料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인 바 그 사이 銀字大藏이 추가 되었으며 一九七五年에 들어 비로소 金字大藏의 유품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A) 銀字大藏

1、至元十二年 不空羈索神變眞言經 ④ 卷十三、一軸。

紺紙銀泥 卷子本으로서 全長 一〇二〇cm 高三〇·三cm로 各行 十四字이다. 卷頭에는 金銀泥線으로 마련된 唐草紋의 標紙가 있고 그 뒷면에는 金泥의 神將立像 一軀가 그려져 있다. 卷尾에는 다음과 같은 二行의 跋文이 있다.

至元十二年乙亥歲

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

또 末尾 背面에는 「三重大師 安諦書」라고 있다. 至元十二年은 高麗 忠烈王元年(一二七五)으로서 현존하는 銀字大藏중 가장 年代가 오래된 바 아니라 卷首에서 卷末에 이르기까지 原形을 지니고 있으며 보존 또한 良好하다.

2、至元十三年 文殊師利問菩提經、一帖、日本 京都、小川陸之輔舊藏。 이 一帖은 日本의 重要文化財(舊國寶)로서 一九三七年 五月에 指定



圖 1. 至元十二年 眞言經 卷首の 神將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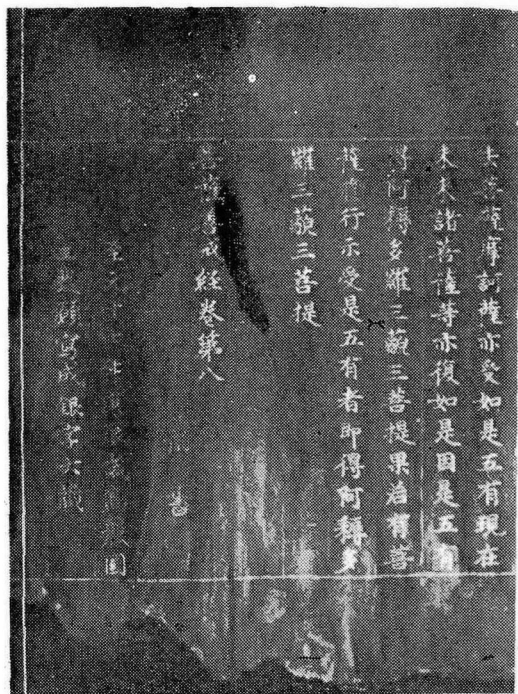


圖 3. 至元十七年 菩薩善戒經 跋文
(清源寺 發見東國大 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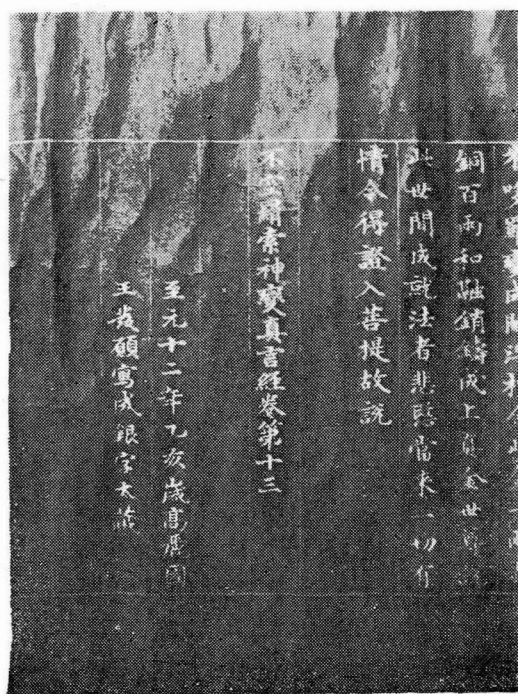


圖 2. 至元十二年 眞言經 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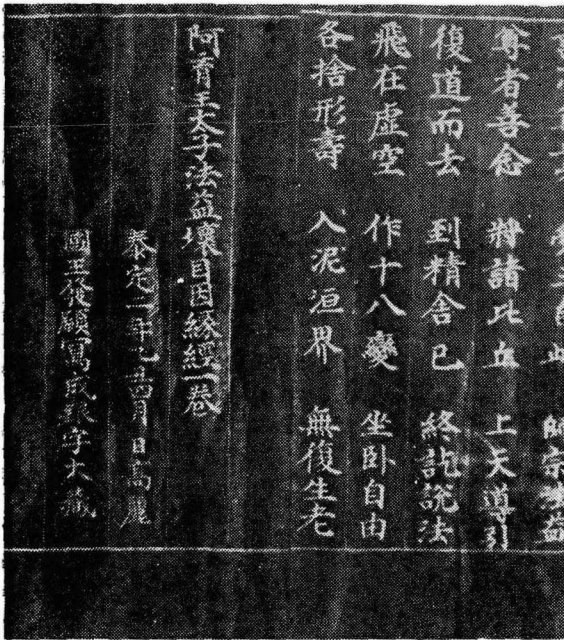


圖 5. 泰定二年 阿育王太子經 跋文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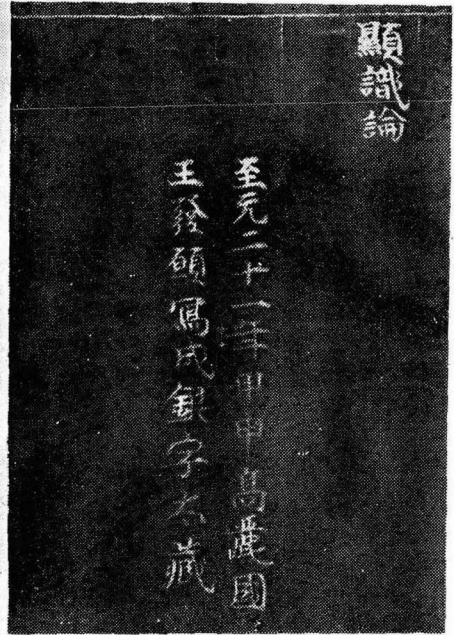


圖 4. 至元二十一年 顯識論 跋文
 (延世大 圖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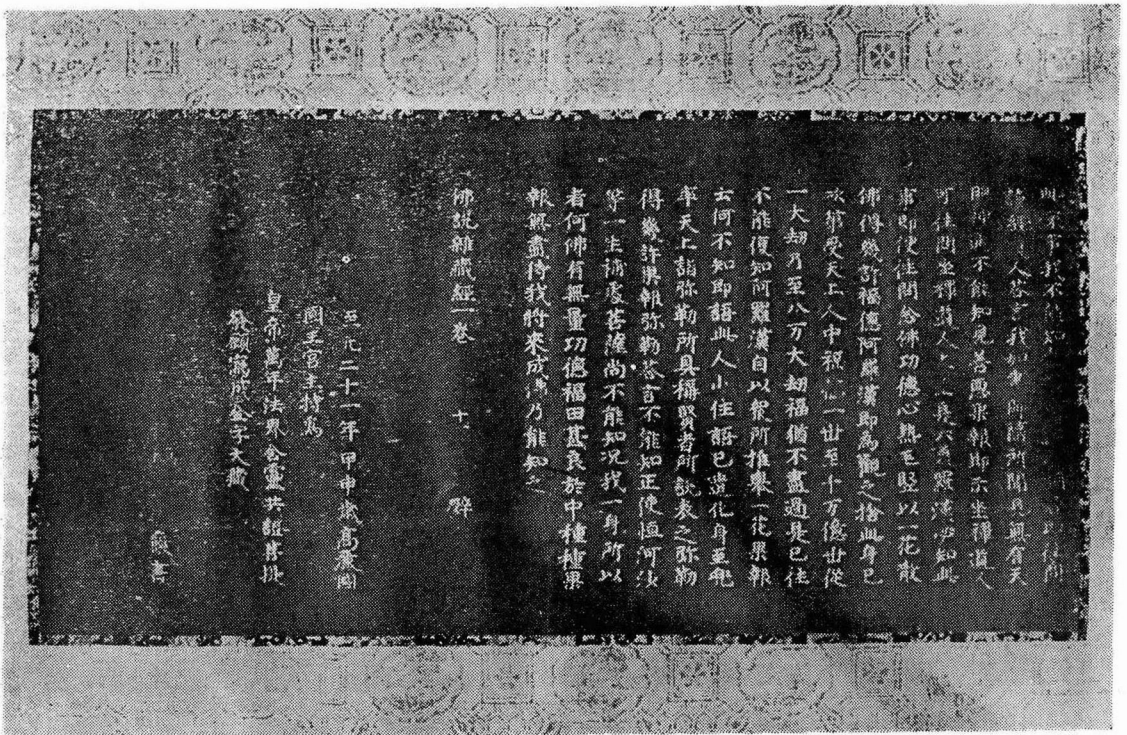


圖 6. 至元二十一年 佛說雜藏經(金字大藏)

되었다. 日本文化財保護委員會에서 刊行한 「指定文化財總合目錄」을 따르면 經名에 附記하여 「至元十三年高麗國王發願藏經」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一帖 또한 (1)과 같은 體裁를 따라 그보다 一年 후에 작성된 銀字大藏으로 추정되는 바 紺紙銀字라 한 것 또한 수증된 다. 이 寫經만은 필자가 現品을 조사할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하였는데 그 資料의 입수를 기대하고 있다.

3、至元十七年 菩薩善戒經 ⑤ 卷八、一卷 서울 東國大博物館 保管。

一九七三年 경기도 安城郡 元谷面 淸源寺 三尊腹藏에서 寫經 計九種이 發見된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卷首가 缺失된 卷子本으로 末尾에 다음과 같은 二行 銀字의 跋文이 있다.

至元十七年庚辰歲高麗國

王發願寫成銀字大藏

그리고 다시 背面에는 一行으로 「禪師 安諦書」라고 있어 眞言經의 書者와 同一人으로 보이는 데 다만 그의 僧階가 다른 사실이 주목된다. 紺紙銀字로서 形式은 同一하며 每行 十四字이다. 高三一cm 長 十三m이다.

4、至元二十一年 顯識論 ⑥ 二帖 서울 延世大學校 圖書館藏。

본래 卷子本이었던 것이 折帖으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高一三·六cm. 不分卷이며 每行 十四字이다. 天地에 銀泥 單細線이 있고 他例와 달리 卷首에는 다음과 같은 二行의 跋文이 있다.

至元二十一年甲申

高麗國王發願寫成太藏

至元二十一年은 고려 忠烈王 十年(一一八四)인데 跋文이 卷首에 옮겨진 것이나 크기가 다른 것 또는 變相圖같은 것이 아니 보이는 것도 變形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5、泰定二年 阿育王太子法益壞目因緣經 ⑦ 一卷 日本 京都國立博物館藏。 卷子本 紺紙銀字로서 紙數 三十八인데 首尾가 完存한다. 泰定

二年은 고려 忠肅王 十二年(一一三五)이다. 表紙에 銀泥로 寶相花紋을 그린 것이나, 每紙背마다 經名을 적고 「第○張禽」이라 銀書하였는데 禽은 千字文에 의한 藏經番號이다. 跋文은 다음과 같다.

泰定二年乙丑四月日 高麗

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 (高二九·七cm 長二〇九〇cm)

(B) 金字大藏

상기한 五件의 銀字大藏 이외에 필자가 一九七五年에 이르러 새로入手한 資料 ⑧에 의하여 고려 忠烈王代에 金字大藏이 또한 國王의 발원으로 進行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日本 東京에서 今年初에 열렸던 古書逸品展示에 出品되었던 紺紙金字 佛說雜藏經 一卷 末尾의 殘卷으로서 그 곳에는 오직 經文 十六行(各行 十七字)과 跋文과 書者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곳에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跋文 四行이다.

至元二十一年甲申歲高麗國

國王宮主特爲

皇帝萬年法界含靈共證菩提

發願寫成金字大藏

至元二十一年은 고려 忠烈王 十年(一一八四)으로서 상기한 銀字大藏 中 顯識論(1의 4)과 同年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金·銀字를 가릴 것 없이 大藏經의 寫成이 고려 忠烈王 一代(一一七五—一一三〇)에 있었으며 따라서 이 王代는 고려 寫經業의 하나의 盛期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곳에서 소개한 합계 六件의 金·銀字大藏 中 五件이 이 忠烈王代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國王發願의 金字大藏은 이 같은 殘卷 이외에 아직 完卷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金字大藏과 관련하여서 현존하는 고려사경의 最古遺品으로 알려진 日本에서 保存된 紺紙金字의 大寶積經(卷三十二) 一卷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寫經 ⑨은 卷頭에 變相圖가 있으며 卷末에 다음과 같은 統和二十四年(고려 穆宗 九年 一〇〇六)의 跋文이 있어 發願者로서 王太后 皇甫氏와 外戚인 金致陽과 書者 校正僧의 이름 이외에 「金字大藏經」이라 한 것이 주목된다.

菩薩戒弟子南瞻部洲高麗國應天啓聖靜德王太后 皇甫氏

大中大夫尙書左僕射判三司隴西縣開國男食邑三百戶金致陽

同心發願寫成金字大藏經

統和二十四年七月 謹記 書者崔成朔

初校花嚴了眞紹世大師曇昱

重校花嚴業大師 綠密

三

위에서金字 또는 銀字로 寫成된 고려의 大藏經 殘卷을 現存遺例를 찾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그 중 金字大藏의 유례는 오직 二件인데 이들은 자기 고려의 前後期로 年代를 달리하고 發願者를 달리한 것이므로 國王發願經으로서는 오직 至元二十一年跋의 佛說雜藏經 殘卷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金字大藏의 전래가 銀字大藏에 비하여 現存하는 유례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金字大藏」에 관한 기록이 麗末 忠烈王代와 그 이후의 高麗史에 자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혹은 金字大藏院^⑩이나 金字院^⑪의 記事 또는 그와 관련되었을 金字藏經^⑫에 대한 記事가 보이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銀字大藏에 있어서는 至元十二年부터 同二十一年에 이르기까지의 四件과 이들 보다 四十年이 뒤지는 泰定二年經이 一件 있다. 그리하여 이들 五件 중 四件이 至元年間인 고려 忠烈王代에 寫成된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들 金·銀字經은 모두 紺紙를 사용하고 있으며 銀字大藏에 있어서는 首尾의 形式이나 各行字數와 跋文의 체계가 同一하고 본래 卷子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이들 國王의 發願經은 上記와 같이 그 寫成된 장소로서 고려사에 보이는 寫經院、寫經所를 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銀字藏經」 또는 金·銀字를 가리지 않은 「大藏經의 寫經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正史에 기록이 보이고 있는 바 그 중 「銀字藏經」에 관한 기록의 연대가 現存하는 유품의 연대보다도 훨씬 오래기도 하다.

寫經院에 불이었다. 이에 앞서 銀字藏經을 寫하라 命하였더니 公私問에 다루어 錢財를 바쳐 助成하는지라 無賴輩들이 그 물건을 도적하고자 하여 불을 지른 것이다.

(高麗史 卷二十 明宗二、辛丑十一年春正月辛亥條)

承益의 錢財가 一國을 기울이며 臺諫이 감히 묻지 못하였다. 일찍

사사로 其人 五十人을 사역하여 집을 짓고 公主의 꾸지람을 두려워 하여 이를 獻納하여 大藏經의 寫經所로 ^⑬ 삼도록 청하니 王(忠烈王)이 허락하였다. (高麗史 卷一百二十三、列傳三十六 廉承益條)

위에서 소개한 「銀字藏經」은 現存遺品에서 본다면 忠烈王元年(至元十二年一二七五)부터 忠肅王十二年(泰定二年一三二五)에 이르는 滿五〇年을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러나 上引한 明宗代의 記事에서 본다면 同王十一年(一一八一)에 銀字藏經을 寫하라 命하였더니 現存하는 最古品(至元十二年一二七五)보다도 약 一百年을 앞서고 있다. 銀字大藏이 이 記事와 같이 明宗代에 비롯하였다고 한다면 그 후 元의 侵入期와 그 前後를 中斷期로 삼고 다시 忠烈王代에 이르러 再開 또는 새로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문제는 且置하더라도 銀字大藏經의 完成이란 至難의 일이며 長久한 歲月을 要하였던 것만은 현재 國內外에서 保存되어 있는 遺品만이 半世紀에 걸쳐서 寫成된 엄연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같은 銀字大藏과 관련하여 상기한 金字大藏의 경우의 金字院과 같은 銀字院이 設置되었던 사실은 忠肅王 元年 春正月 庚寅에 王이 僧滿恒을 이곳에 訪問하였다는 記事(고려사 卷三十四 忠肅王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이 銀字院이란 곧 銀字大藏院을 가리킬 것이다. 하물며 銀字大藏에만 그치지 않고 金字大藏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실하므로 과연 그 寫成이 國王의 發願과 寫經所의 設置 또는 숙련된 多數의 寫經僧같은 여러 條件을 前提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고려의 大藏經 寫成은 모두 僧侶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元이 그들을 徵用한 사실^⑭은 그들이 佛(藏)經紙^⑮를 자주 要求한 사실과 더불어 여러 차례 보이고 있다. 또 위에서 引用한 明宗代와 忠烈王代의 寫經院(所)과 더불어 忠宣王代의 三大藏所^⑯의 기사가 주목된다.

이상 그 사이 조사한 자료를 간략하게 集成하면서 앞으로 이같은 國王發願經의 새로운 발견을 국내외에서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고려一代를 통하여 大藏經板의 雕成과는 따로 고려의 나라와 王者가 여러 차례 애써 이룩하였던 이같은 「金·銀字大藏」의 빛나는 偉業과 그 막중한 文化史的 意義가 더욱 밝혀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다.

① 日本 京都 比叡山 延曆寺에 紺紙銀字法華經 七卷이 있어 源豐宗교수에 하여 新羅下代(九世紀)의 作品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異論도 있으며 一九七三年 三月에는 필자가 鄭良謨 慶州博物館長과 함께 現品을 調査한 바 있었다.

源豐宗·「延曆寺紺紙銀字法華經見返繪について」『大和文華』(五十號)一九六九, 四 이외에 禿氏祐祥氏는 新羅寫經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墨字經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附記)

② 拙稿·「安城 清源寺의 高麗寫經」(『東洋學』 제五집) 一石李熙昇博士八句記 念號 一九七五年 五月 檀國大刊 예정

③ 그 중에서도 韓末까지 全南 靈岩 道岬寺에서 傳來하던 洪武癸丑年跋文의 揭紙銀泥 法華經 七卷은 해방 후 日本 東京의 故張錫氏가 그곳서 入手하였던 것을 一九五九年 필자가 처음 조사하였으며 一九六九年에 이르러 在日僑胞인 金大鉉氏가 買入하여 本國에 寄贈한 것이다. 오늘날 國立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다.

④ 『韓國古美術』文化財管理局 編 一九七四年刊(圖版 九) 一九五九年 日本 東京에서 故張錫氏의 고마은 配慮로서 入手하였다.

⑤ 上記(2)

⑥ 東國大學校·高麗寫經展觀目錄 一九六二年 五月 佛教文化研究所開創記念

⑦ 守屋孝藏 蒐集『寫經圖錄』日本 京都博物館 一九六四年 刊行

⑧ 『古書逸品展示大即賣會目錄』(反町弘文莊 主宰 一九七五年 一月 四日) 九日 日本 東京 三越本店)이 資料를 보내준 大和文華館 吉田宏志氏에게 感謝한다.

⑨ 神田喜一郎·「中國의 裝飾經について」(『大和文華』第五十號) 一九六九, 四, 日本 奈良 大和文華館 發行

⑩ 『高麗史』卷二十九 忠烈王九年 癸未 九月條. 「己未에 王이 公主로 더불어 僧徒를 金字大藏院에서 供養하였다」.

⑪ 『高麗史』卷三十 忠烈王十五年 己丑 閏月條. 「乙酉에 金字院에 行次하여 大藏經을 慶賀하였다」.

⑫ 『高麗史』卷三十三 忠宣王二年 庚戌 六月條, 同 卷百二十一 方臣祐傳

「壬子 元이 宣者 方臣祐를 보내어 金字藏經을 監書하다. 皇太后가 金薄六十餘錠을 보내다」 『高麗史』卷三十四 忠宣王四年 壬子 八月條 「甲戌에 命하여 金字藏經을 旻天寺에서 쓰게 하여 母后를 追福하였다」 이보다 앞서서는 玄化寺碑陰記에 顯宗朝의 일로서 「欲求大藏經 特蒙許送 金文一藏」이라 보이고 있다.

⑬ 이 記事는 『高麗史節要』(卷二十 忠烈王二) 七年 三月條에 「廉承益請以 其家一區爲 金字大藏寫經所 許之」라고 있어 金字藏經을 위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⑭ 高麗의 寫經僧이 元에 徵用된 기사가 高麗史에 자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고려 寫經이 東洋에 冠絶하였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 記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忠烈王十六年 庚寅三月 「庚申, 帝, 以寫金字經 徵善書僧 乃遣僧三十五人 如元」

· 同年四月 「丁酉 遣寫經僧六十五人 如元」

· 同年八月 「癸酉, 遣將軍趙瑋 押寫經僧 如元」

· 忠烈王二十三年 丁酉 八月 「癸巳, 元, 遣使, 徵寫經僧」

· 忠烈王二十八年 壬寅四月 「辛未, 元, 遣別帖木兒等, 來徵寫經僧」

· 忠烈王三十一年 乙巳二月 「庚寅, 元, 遣忽都不花, 來求寫經僧, 選僧一百, 以遣之」

이 外에 大邱 桐華寺 弘眞國尊碑文中에 「庚寅領寫經僧衆一百員到大元國 大都(中略) 至翌年以金泥寫大藏經事畢」이라 보인다. 庚寅은 忠烈王十六年 이다. (『朝鮮金石總覽』上 五九七頁)

⑮ 『高麗史』卷三十三 忠宣王元年 四月 辛巳條, 同 卷三十五 忠肅王世家 八年 五月 甲午, 後 七年 七月 丙辰條

⑯ 『高麗史』卷三十三, 忠宣王即位年 七月에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乙巳, 幸三大藏所, 命寫五大部經

〔附記〕

高麗 寫經에 대하여 다음의 論文이 있어 參考하였다. 그러나 모두 高麗國王 發願의 金·銀字大藏의 現존하는 遺品을 들지는 않았다.

安啓賢·「元關係에서 본 高麗佛教」(『黃義敦先生記念史學論叢』一九六〇年 東國大刊)

安啓賢·「高麗時代의 寫經」(『聯合新聞』一九五七年 五月 三十一日, 六月 一日 禿氏祐祥·「高麗時代의 寫經に就て」(『寶雲』二十五冊 一九三九年 十一月刊)